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추수감사절**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떼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에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원로나들이** : 이번 주 목요일(5일)에 산정호수로 원로 나들이를 갑니다. 아침 9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세요.

**사진** : 가을 소풍 사진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폰으로 전송 가능).

**판매** : 홍천 친환경 절임배추 주문 예약 받습니다. 10kg에 21,000원이며 11월 14일과 28일에 배송됩니다. 친환경 호박 고구마도 판매합니다. 5kg 15,000원입니다.

**신앙실천** : 단풍이 절정입니다. 아름다운 절정을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을 산이나 숲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부	룻 3:1-5 / 시 127	2부	잠 12:10-19
예배	히 9:24-28 / 막 12:38-44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광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신영희 윤성종 최철수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이한님 조우석 한성건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추수감사주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절로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물과 우리의 삶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끝없이 정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혼자만의 올바름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며 상생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오늘에 이른 역사를 뒤로 되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렘31:13,14 ..... 인도자
- ♣ 교 독 문 ..... 105. 감사절(1)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588.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 함께
- ♣ 성경봉독 ..... I. 룿1:1-18 히9:11-14 막12:28-34 ..... 서효진 선생  
 II. 시56:1-13 ..... 이은정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 찬 양 ..... 추수일꾼의 찬송 ..... 찬양대
- 말 씬 ..... I. 누군가의 벗이 된다는 것 ..... 김기석 목사  
 II. 내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김경혜	김금순	김기석	석영희	김희우	김남종	오복선	김애경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홍	김희희	김영희	김종철	김고영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지운	정영우	문홍일	김민지	최희희	박병구	박영희	박옥식	박용철
김운정	박창운	허정운	방문성	박해경	유중희	이영희	이용석	이용현	이자영	이재문
이주경	임승동	백해숙	장미경	정복순	조한권	조현경	박이영	최현	최형균	강경화
추현영	한상균	허신열	홍소형	강신철	이혜명	김주성	권미정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정민	이혜령	김정진	김혜정	김종문	지명주	김주영	김주영	김주영	노우영	김종현
성귀옥	김현동	오유혜	김인선	김혜진	문운성	박범우	박미영	박미영	박상욱	박준희
이기분	김재민	이소혜	송인선	왕수명	이문운	이왕준	김송성	이유선	이준림	이치림
이광섭	김수현	이동천	이영욱	장주욱	정영원	정영원	정완수	김재광	정현선	유병선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서영	장기수	정영원	정영원	정완수	김재광	정현선	유병선
정현숙	조순덕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최진성	최진성	최영은	하현철	최성애
허명선	허성호	진은혜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 감사헌금

강순배	강신철	이혜정	강요한	원은이	권혁순	박해경	김성욱	진혜정	김성한
조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향자	박병구	박재영	이현정	변재민	이소혜	오송경
이범석	류정욱	이왕준	송상경	이은주	이은혜	이인웅	이재문	임선양	신현숙
장근성	박희순	전은한	주현철	강미선	최준혁	그소망	교회	무명8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안종일 정현주 윤미경 윤수진 임설희 무명4

생일감사헌금 박지인 안정준 임다영 최용훈 김고은 무명6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해숙	박성희	박영희	조순덕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이소순	서원금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김진경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김경수	정선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야외	권미숙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유금주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정현주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해경	박해경	박미연	이수자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Thanks to God

August L. Storm 사 Johannes A. Hultman 곡 문정선 역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가 올 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사랑 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측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해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취주십니다.
다 함께:	아멘.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진정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나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재흥 목사
	저녁 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임창국 선생
	김기석 목사	김정민 장로	이수정 집사

11월	영접위원	김정민 권혁순 정현모 이해령 유경순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 ▣ 믿음으로 읽는 글

### 감사하는 마음

...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이, 낯선 길을 친절히 일러주는 이, 외롭고 쓸쓸할 때 곁에서 말벗이 되어주는 이, 무엇을 받을 만한 공덕을 쌓은 일도 없는데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당연한 듯 받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와 나 사이에 난로를 둔 듯 기쁨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 아닌 누군가의 숨결과 땀과 눈물,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아니던가요.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는 김현승의 시구가 곧 그것이죠. ...

시인은 믿음의 선조들이 방랑 속에서도 늘 ‘감사의 마음’을 지녔음을 기억해냅니다. 기억은 영혼의 아름다운 본성이라던가요. 시인은 믿음의 선조들이 방랑의 세월을 겪는 동안 굶주림을 비롯해 사나운 맹수들, 마음속 우상과 싸우면서도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한 가난한 과부 같은 이도 떠올립니다. ‘허물어진 마음에서 / 불 없는 방에서 / 빵 없는 아침에도 / 가난한 과부들은 /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 드리려고 드렸더니 / 드리기를 위하여 드렸더니 /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평화롭고 안온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선물꾸러미를 한 아름 안고 찾아올 때 감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허물어진 마음에서 / 불 없는 방에서 / 빵 없는 아침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행이 엄습할 때,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애지중지하던 소유를 잃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심이 두터운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런 감사를 ‘그럼에도in spite of’의 감사라 불러봅니다.

... ‘감사하는 마음 -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 시에서 노래하는 ‘아는 마음’이란 곧 깨달음을 말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나를 지은 조

물주가 따로 계시다는 것, 나는 종에 불과하고 나를 부리는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눈이 열리면 희미하게 어른거리던 것들이 돋보기를 낀 것처럼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거숭이인 나의 모습과 별거숭이인 나를 은총으로 감싸는 ‘주인’의 모습이 하나로 포개집니다. 햇빛은 마음에 무한이 포개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에고ego를 비운 유한한 존재가 무한으로 솟아오르는 비약의 순간입니다. 티끌처럼 하찮은 우리가 하느님의 걸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개화開花하게 해주지요.

온 세상에 불이 꺼져 캄캄할 때에도,  
내가 찾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 끝으로  
희망에서 불을 붙여 온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때에도  
우리의 무덤마저 빼앗을 때에도  
우릴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희망!/  
우리에게 한 번 주어버린 것을  
오오, 우리의 신神도 누우치고 있을  
너와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 김현승, <희망>부분

온 세상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희망에서 불을 붙여 오는 사람. 도무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이의 영혼은 곧 ‘축복받은 궁전’이며,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집’(줄리앙 노르위치)입니다.

고백하건대 이 시를 읽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가늠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없던 젊은 날, ‘오오, 우리의 신도 누우치고 있을 / 너와 나의 희망!’이라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인의 거룩한 긍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삼쌍둥이처럼 늘 함께 존재하는 감사와 희망.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와 희망이 캄캄한 하늘에 갇히면 별이 되어 먼 언덕 위에서 빛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 고진하, 「시 읽어주는 예수」(비채) 중에서